

大韓民國 大統領 領夫人의 헤어스타일 分析

李秀喜* · 趙鎮娥** · 羅海允

全南大學校 衣類學科 博士課程*
西京大學校 美容藝術學科 教授**, 光州女子大學校 美容科學科 講師

Analysis of Korean First Ladies' Hair Style

Lee, Su-Hee* · Cho, Jin-A** · Na, Hae-Yun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of Chonnam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Beauty art, Seokyeong University**
Lecturer, Dept. of Beauty Science, Kwangju Womens University

Abstract

Although Korean first ladies are not very big in changes in their hair style, American first ladies have greatly influenced clothing as well as hair style, exercising their influence over the apparel industry and fashion. Historically, American first ladies' fashion tastes have been on the center of attention and taken the lead in fashion. Although Korea first ladies' hair style are not very new or sensible enough to lead the fashion among the public, they have a sense of fashion and some influence on women of the upper classes. Beauty artists creating first lady hair style are representative of the times and have great value to the research. However, this study will not concentrate on their research.

This study will analyze Korea first ladies' hair style, examine hair design and hair technique in fashion in those days.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important materials for Korean beauty history that has not been established by systematically arranging fashion style in the times analyzed through first ladies' hair style. Also, this study aims at researching in the aspect of beauty aesthetic concept through analyzing Korea first ladies' hair style.

Key words : Korean first lady(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 hair style(헤어 스타일)

I. 서론

1. 연구 목적

모발(毛髮)을 가다듬고 꾸미는 것은 신체 보호의 기능 외에 주술적이며 심미적인 기능을 가미한 것으로 인간의 종합 예술적 표현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受之父母) 하니 불감훼상(不敢毀傷)이 효시(孝之始也)”라 하여 모발 다루는 것을 효(孝)의 하나로 생각하여 소중히 여겼으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발의 꾸밈새로 사람의 지위, 계급, 신분, 혼인의 유무 등을 알 수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도 헤어스타일(hair style)은 사회적 현상을 표출하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세기 이전의 조선시대의 헤어스타일을 살펴보면, 유행에 민감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회, 경제, 문화의 환경적인 배경이 헤어스타일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는 유교사상으로 인해 땡기머리나 쪽머리 등으로 단순하였으나 단발령(斷髮令)과 개량한복이 인허를 받으면서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신여성들은 책 머리카락이나 트레머리를 하였으며, 개화된 신여성들 사이에는 외국에서 유행한 팜프 도어(pompadour) 라는 헤어스타일이 유행 하였다. 머리를 치켜 올린다음 과다하게 부풀려서 정수리 부분에 틀어 엮거나 리본을 매기도 했는데 불어로는 ‘포파두르’라고 불리우고 ‘팜프도어’는 일본식 표기이다. 또 이마 위에 모자의 챙같이 볼록 내밀게 빗었다는 의미에서 일명 ‘챙머리’라고 불리기도 했다.

반면 21세기의 특징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개성으로 승화시키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또한 그에 따른 소비 현상도 점점 급증하면서 결과적으로 미용 산업이 발전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 중 큰 변화의 하나는 모발 제품의 개발과 함께 과거의 단순했던 모발 색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모발 색이 시도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디자인이 고안되면서 헤어스타일의 급속한 변화와 유행을 가져오게 된다¹⁾.

이와 같은 시대에 따른 헤어스타일 변화는 역대 대통령 영부인의 헤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역대 대통령 영부인마다 헤어스타일 변화의 폭이 크지 않지만, 미국 영부인(first lady)의 경우는 헤어스타일을 포함한 의복(衣服)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의류산업과 유행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역사적으로도 미국의 영부인들의 유행취향은 세인들의 주목이 되어 왔으며, 또한 유행을 이끌어가는 선두에 서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의 헤어스타일이 대중들에게 유행을 이끌어 낼 만큼의 새롭고 감각적인 헤어스타일은 아니었다하더라도 최소한 그 시대의 유행과 디자인적 감각을 지니고 있었으며, 고위층 여성 인사들의 헤어스타일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부인들의 헤어스타일을 연출했던 미용사들은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유명하신 분들로 연구의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영부인의 헤어스타일을 담당했던 미용사들에 대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의 헤어스타일을 분석하고 당시 유행한 헤어 디자인과 미용기술(美容技術)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영부인의 헤어스타일을 통해 분석된 각 시대의 유행 스타일에 대한 체계적 정리를 통해 아직까지 정리되어 있지 않은 한국 미용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의 헤어스타일 분석을 통해 미용 미학적(美學的) 개념에서의 연구를 시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임을 기점으로 그 시대의 유행 헤어스타일을 조사하고, 대통령 영부인의 성격(性格)과 환경(環境),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조사하였다. 제 1~3대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제 4대 윤보선 대통령의 부인 공덕귀 여사, 제 5~9대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 제 10대 최규하 대통령의 부인 홍기 여사, 제 11~12대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 제 13대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제 14대 김영삼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제 15대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로 재임 순서로 연구, 분석하였다. 그러나 홍기 여사의 경우는 249일 동안 영부인이었으며, 공식석상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소박하고 검소한 영부인으로만 기억되므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현재 제 16대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의 경우는 현재 재임 중에 있어 아직까지 연구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이 두 명의 영부인을 제외한 7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의 연구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어 현재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부분은 극히 제한하였으며, 연구를 위한 자료는 우리나라 영부인에 관한 논문과 전라남도 도청의 행정자료실에 비치된 국가홍보처, 문화공보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발행된 서적들과 청와대 홈페이지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의 역대대통령 기록관의 많은 사진화보(畫報)와 보도 자료를 통하여 헤어스타일을 분석하였다.

II. 재임기간의 시대적 배경

1. 이승만 대통령 시대 (1948~1960년)

1) 시대적 배경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시작된 약 35년간의 치욕의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새롭게 정부가 수립되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불안정한 시기였다. 1950년에는 6.25 동란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실에 대한 극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되었다. 3년 동안 계속된 전쟁은 38선을 경계로 휴정협정에 들어갔으며, 약 반세기가 넘는 지금까지 휴

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6.25 동란으로 인해 남편과 자식을 잃은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직업전선에 나가게 되었으며, 비록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문학에서도 나타났으며, 그 시대 베스트셀러였던 정비석의 “자유부인”(1954년)이 등장하여 변혁기의 새로운 화제를 낳기도 하였다. 극심한 이데올로기를 겪던 우리나라에는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하게 되었으며 이 후, 북쪽은 공산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고, 남쪽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게 된다. 이 시기 미군의 영향으로 인해 민주정치와 미국 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 전반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2) 복식문화의 경향

1945년 광복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치욕적인 몸빼와 일본식의 간단복을 벗고 한복을 다시 입기도 하였으나 서양의 주름치마와 블라우스, 투피스, 원피스가 등장하면서 점차적으로 복장의 간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또한 1955년 국민복 착용을 권장하는 신생활 운동이 전개되면서 의복이 간소화되었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미국 원조물자에 의한 중고의류가 국내에 조달되면서 양복과 양장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명동을 중심으로 한 양장점에서는 재건 복, 탈색된 바지, 타이트스커트, 하이힐, 맘보바지, 싹 드레스, 파티 쿠투트 스타일이 유행하였고, 통이 넓고 길이가 긴 빅 코트도 등장하면서 유행을 선도하였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입었던 회색 투피스가 유행하면서 상류층에서 큰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 1956년에는 국내 패션 디자이너 노라노(노명자)에 의해 반도호텔에서 최초의 패션쇼가 개최되었으며, 1959년에는 미국과 프랑스 등 15개국 이 참가한 국제패션쇼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3) 미용문화의 경향

1950년대 초반에는 가루분과 미용 수(水)를 이용한 민간요법이 등장하였으며, ‘구리무(일본식 표기)’라 불리는 크림이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민간인들이 직

접 제작해서 사용하게 된 이유는 신식 화장품의 생산과 판매를 맡았던 일본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화장품의 생산과 수입이 힘들어 일반인들의 화장품 구입이 힘들어졌기 때문이었다. 1957년에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시작되면서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TV의 등장으로 인해 스타들의 외모에 관심을 갖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스타들의 의복과 헤어스타일, 화장의 형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미용과 유행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었다. 당시의 화장 형태를 살펴보면, 눈썹은 두껍고 진하였으며 전체적인 화장의 형태는 진한 경향을 보였다.

1950년대에는 1945년 광복을 맞이하면서 일제 말에 금지되었던 퍼머넌트 웨이브(permanent wave)가 다시 등장하였는데 주로 전기 퍼머넌트 웨이브였다¹⁾. 1940년대 말 머리 길이는 짧아졌으며, 잡지나 영화 속의 국내외 영화배우들의 헤어스타일이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배우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의 여주인공 오드리 헵번 스타일이 큰 유행을 하였는데, 그녀가 하고 있던 ‘이탈리안 보이’라는 헤어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파란을 일으켰다. 일반 여성들은 퍼머넌트 웨이브나 세팅(setting) 또는 일본어와 영어가 합성된 용어의 아라이(あらい)라는 잘게 볶듯이 아이론으로 컬을 내는 것으로 앞머리에 컬(curl)과 웨이브(wave)를 넣어 연출하는 아라이 아이론(あらい iron)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잠시 전기공급이 중단되면서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가봉 퍼머가 유행하였다. 번개탄과 비슷한 것으로 손가락 크기만한 연료를 가봉이라고 했는데 그 가봉에 불을 붙여 퍼머 집계의 양쪽에 두 개씩 네 개를 넣어 은박지를 대고 머리를 말아서 퍼머를 하는 것으로 일명 ‘불퍼머’라고도 하는데 화상의 위험이 있었던 시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행을 따라 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시도되었다. 또한 아이론으로 웨이브를 만드는 지라시 스타일은 앙글레즈(anglaise) 헤어에서 파생된 스타일로 세로로 롤을 감거나 핀컬에 의해서 버티컬 웨이브 (vertical wave)를 형성시키는 유행 스타일 이었고, 컬링 아

이론을 이용하여 웨이브를 만든 업스타일(up style)도 눈길을 끌었다. 영화나 TV를 통해 접하게 된 배우들의 영향을 받은 스타일이 크게 유행하였다. 1950년대 중반 콜드(cold) 퍼머넌트 웨이브용제가 새롭게 등장하여 불 퍼머넌트 웨이브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2. 윤보선 대통령 시대 (1960~1961년)

1) 시대적 배경

윤보선 대통령은 이승만 정권이 1960년의 4.19혁명으로 붕괴되면서 민주당 후보로 입후보하여 제 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1961년의 5.16 군사 쿠데타로 사임하면서 약 2년간 재임하였다. 이 시대는 사회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혁을 겪었던 격동의 시대였다. 1960년대 잔후반은 서구의 새로운 과학기술이 도입되었던 시대로, 교통 및 통신의 확대와 이에 따른 도시화의 촉진, 그리고 대중매체의 대량보급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2) 복식문화의 경향

1960년 잔후 시대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유행을 선호하던 시대였다. 정부 수립 무렵, 남성복은 마카오에서 들어온 영국제 복지로 양복을 해 입은 마카오 신사가 멋쟁이로 인정을 받았으며, 1956년에는 제일모직이 국산복지를 선보였다. 1960년대부터는 ‘기성복 시대’를 열어가면서 명동과 남대문로는 물론 번두리 변화가까지 양복점과 양장점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때부터 남성복 정장은 양복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 TV 보급의 증가로 서구적인 양식을 선호되면서 양장이 일상복이 되었다. 1961년 군사혁명과 더불어 패션은 ‘전형적인 사치품’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하였으나 봉제품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보세가공 잉여품이 인기를 누리면서 향아리치마의 투피스, 개량한복, 맘보바지가 함께 유행하였다. 1961년 국제복장학원에 최초의 스타일학과까지 창설되면서 패션스타일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다.

3) 미용문화의 경향

헤어스타일은 날개를 편 물새처럼 기품 있고 풍만한 현대적인 감각을 살린 바가지 스타일이나 백조라인의 스타일은 미용용어로는 크라운 봄베이지(crown bombege)스타일이라 했는데 이것은 크라운(crown)에 볼륨이 있고 부풀어 있는 모양에서 나온 말이다. 갖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형태로 정수리를 부풀렸고 백콤(back comb)을 넣거나 부분 가발을 엮었으며 스트레이트한 업스타일과 보보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3. 박정희 대통령 시대 (1963~1979년)

1) 시대적 배경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정립된 군사정권체제는 국제적으로는 이데올로기적 문제, 국내 문제로 남북한의 휴전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국제적으로 미국의 월남전 여파로 인한 국내의 반전 분위기가 고양되었고, 막대한 군사비 투입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심한 인플레이션(inflation)과 지속적인 국제수지의 악화 및 경기 침체에 시달려야 했다. 1970년대 초에는 석유파동과 국제고금리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했으나 1970년대 후반에는 경제가 고도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아파트 붐, 부동산 투기, 핵가족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변화된 산업 사회화의 변화된 모습은 보다 편리하고 개성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2) 복식문화의 경향

1960년대 중반에는 의복 유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판탈롱, 청바지(blue jeans)와 지금도 유행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미니스커트의 혁신을 일으키게 된다. 미니스커트는 1967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활동 중이던 가수 윤복희가 입고 귀국하면서 유행하게 되었는데,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가죽 소재의 롱부츠와 함께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풍기 단속의 대상이 되면서 장발과 함께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3) 미용문화의 경향

이 시대의 화장은 크고 검은 눈, 창백한 입술이 인기를 끌었으며, 눈썹은 아주 두텁고 진하게 그리거나 아예 밀어 버렸다. 가짜 주근깨, 장미 빛과 반짝이는 블러셔(brusher)가 유행하였다.

1960년대의 유행한 헤어스타일은 언밸런스 스타일(unbalance)과 쉐기 커트(shaggy cut : 거지커트), 머쉬룸 커트(mushroom cut, 바가지 머리)와 70년대에는 비달 사순(vidal sassoon: 1928~)에 의해 기하학적인 커트 기법이 선보이며 헤어스타일의 수학적 개념이 도입되면서 커다란 변화를 불러오게 되었다. 이 시기는 커트의 전성기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커트가 유행하였다. 70년대의 대표적인 머쉬룸과 아울러 쇼트커트의 시초로 불리는 화이어 플라이(fire fly)와 수학적 개념이 도입된 스택 펴(stack perm))이 유행하였다. 이 시기의 특징적인 것은 블로우 드라이어(brow dryer)가 새로운 기구의 등장하면서 정형화된 웨이브보다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웨이브와 함께 곱마름(소도마끼: そとまぎ), 안마름(우찌마끼: うちまぎ)등의 다양한 스타일이 연출되었다. 또한 급속히 발전되는 산업화의 결과로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자연으로의 회귀 심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대두되면서 히피 스타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

4. 전두환 대통령 시대 (1980~1988년)

1) 시대적 배경

1980년대는 신군부에 의한 강압정치로 사회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1979년의 석유파동과 10.26사태와 5.18 광주민중항쟁 등의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경제는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맞게 되어 산업은 매우 심각하게 침체되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기에는 점차 경제가 성장, 안정화되고 소득이 급상승하면서 과소비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2) 복식문화의 경향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군부에 의한 강압정치로 전반적인 사회와 경제의 혼란 현상이 보였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86 아시아 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안정화에 들어서게 되고 국제적 관계가 상승됨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하였으며,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가 활동을 위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로 인해 스포츠 웨어나 캐주얼 웨어의 판매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¹⁾. 또한 외국 유명 상표가 국내 도입이 되면서 패션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의복의 소재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는데, 신소재가 개발되고, 기술력도 진보되면서 패션 시장도 호황을 누렸다.

3) 미용문화의 경향

해외여행이 허용되어 외국에 나갈 기회가 많아지면서 패션이나 유행의 주기의 폭이 좁아졌는데, 그러한 양상이 머리와 화장의 형태에도 반영이 되었다. 국내 화장품은 외국의 수입이 자율화 되면서 기술력 증진에 크게 반영되었으며, 색에 있어서도 자연을 연상하게 하는 다양한 톤의 갈색과 자연스러우면서 편안한 분위기의 유행 색조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개성과 개인주의가 중시되면서 화장품도 세분화되었으며, 피부를 생각하는 기능성 제품과 자연친화적인 제품들의 사용이 급증하였다.

헤어스타일은 교복과 두발의 자율화가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개성을 중시하는 헤어스타일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며, 헤어 기구와 도구에 있어서도 클리퍼(cliper)와 레이저(lazer)와 같은 신제품과 기술이 보급되면서 머리카락의 질감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보급되었다. 이러한 커트 기술은 외국의 각 유명 교육기관에서 직접 연수를 받고 돌아온 해외 유학파들에 의해 기술력이 국내로 보급 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영향력은 미용교육의 붐으로 연결되면서 미용 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또한 고정력이 강한 스타일링 제품들이 보급되면서 앞머리를 세우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84년에는 스트레이트(straight) 스타일이 등장하

면서 긴 머리의 굵은 퍼머 스타일과 헤어 컬러링과 특수로드로 와인딩 하여 컬을 살리는 퍼머가 함께 유행하였다.

5. 노태우 대통령시대 (1988~1993년)

1) 시대적 배경

전 시대의 세계화에 따른 경제발전 성과에 힘입어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민주화에 따른 생활의 다원화로 급진전되었다. 또한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탈산업 사회적 기초가 마련되고, 국제 교류의 팽창에 따른 국제 의식의 성장도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소비시장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치가 급증하였다.

2) 복식문화의 경향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하이테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복고지향, 환경파괴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 이슈가 되면서 전체적인 색의 표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고 차분한 꽃무늬와 솔리드의 단독의 색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전체 이미지를 강조하는 패턴이 등장하였다. 소재에 있어서도 면이나 실크 등의 천연 소재가 인기를 끌었다.

3) 미용문화의 경향

이 시기의 화장은 복고 스타일이 다양하게 시도되었고 여성스러운 로맨틱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헤어스타일은 헤어 컬러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다양한 색의 헤어스타일이 연출되었다. 직선적인 뱅(bang)을 짧게 자른 앞머리와 뒷머리를 짧게 자른 머리형태도 유행하였다.

6. 김영삼 대통령 시대 (1993~1998년)

1) 시대적 배경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군대문화가 청산되면서 문민우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케이블 시대가 개막되

면서 공중파 방송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기술 매체의 영향과 대중매체의 확산은 대중상품의 일반화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교육수준은 향상되고 지구환경보호, 인권보호, 자유와 평등, 세계시민의식 등의 긍정적 가치관이 확산되었다. 문화적 정보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는 생활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러나 1998년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를 맞게 되면서 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침체하게 된다.

2) 복식 문화의 경향

오랫동안 유행되었던 캐주얼 웨어에 식상한 층으로부터 정장이 다시 인기를 되찾기 시작하여 패션의 전반을 복고풍이 주도하고 부드러운 옷감과 부드러운 실루엣으로 여성다움을 부각 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패션이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개성을 추구하는 풍조가 정착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3) 미용 문화의 경향

이 시기, 헤어 컬러링 산업은 그야말로 급성장하게 되면서 미용 산업의 커다란 발전 시기를 가져오게 된다. 헤어의 색상은 무거워 보이는 색보다는 브리지(bleach)와 컬러링으로 하이라이트를 강조한 밝고 세련된 스타일이 등장하게 되면서 동양인의 칙칙한 표정을 보완해 주었다. 커트의 경우에도 깃털처럼 가볍게 처리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유명 헤어디자이너들에 의해 개발·보급 되면서 TV에서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연스럽게 손질하기 쉬운 곱슬 거리는 퍼머넌트 웨이브 스타일이 유행하였으며, 다양한 색으로 모발의 색을 바꾸어 주는 염색 및 탈색이 유행을 하였다. 특히 염색으로 인하여 모발이 손상되자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기 위한 모발 및 두피의 트리트먼트의 중요성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두되어 나타났다. 1990년대의 헤어스타일은 패션의 다양화와 컬러의 조화를 들 수 있으며, 개성을 추구하는 풍조가 정착되면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자신의 개성을 한껏 부각시키는 헤어스타일이 유행하게 되었다. 또한 90년대 초에는 60년대의 복고풍이 유행을 하면

서 크라운 부분을 둥글게 말아 양감을 살리면서 현대 감각에 맞게 스트레이트 헤어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스타일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경쾌하고 가볍게 보이는 헤어스타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일반화되면서 브로우 드라이 스타일링이나 헤어 세팅보다는 자연스러운 퍼머넌트 웨이빙을 한 다음 무스나 젤을 발라 컬과 웨이브를 살리는 간편한 스타일로 연출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7. 김대중 대통령 시대(1998~2003년)

1) 시대적 배경

IMF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여건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어려운 사회적 환경을 헤쳐 나온 시대이다. 또한 동서간의 지역감정을 햇빛정책으로 이끌어내면서 국민화합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으며, 북한과의 관계에 호전적 진보를 가져온 시기이다. 밀레니엄(millennium)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소 세기 교체로 인한 불안감과 기대감으로 들뜬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2) 복식 문화의 경향

소위 X세대로 불리우는 신세대들에게는 노출이 심하고 몸에 꼭 붙어 신체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티셔츠와 초미니 스커트, 핫팬츠, 청재킷, 화려한 프린트의 원피스, 군화스타일의 구두 등 왜색풍의 패션이 유행하였는데 유행의 주거나 사이클은 짧아졌다. 의복재료로는 실용성을 살린 신소재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3) 미용문화의 경향

소영진(2004)에 따르면 최근에 헤어스타일에 표현되는 다양성은 샤키 커트처럼 부드러운 것, 전형적인 원랜스 커트처럼 무거운 것, 또는 헤어 장식에 있어서 플라스틱이나, 철사 등을 이용하거나 실이나 새털을 이용하는 것, 여러 가지 헤어 칼라를 염색하는 등

소재 및 이미지 표현이 헤어스타일을 통하여 자아표현의 기호로 반영된다고 하였다. 또한 ‘뉴 밀레니엄’ 시대가 열리면서 세상은 최첨단의 디지털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고 모든 생활에 인터넷, 케이블 TV, 핸드폰이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생필품까지 네트워크를 통해 주문하고, 주문한 물건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정확하게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유행의 주기나 사이클도 아주 짧은 시기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형태가 나오게 되었으며, 주로 드라마가 유행하는 시기의 스타 외모나 의복, 헤어스타일, 화장 형태가 유행의 주류가 되었다. 이 시기 주목할 만한 사항은 외모 지상주의적 성향이 짙어지면서 성형이 일반화되었다는 점이다.

헤어스타일의 경우도 경기가 침체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고객들은 한가지의 커트 형태에서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멀티 스타일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예인의 스타일을 따라하는 세태는 여전하였다.

III.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영부인의 헤어스타일 분석

1. 도나 프란체스카 (Dona Francesca)여사

1) 환경 및 성격

고영현(1994)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의 부인인 프란체스카여사는 오스트리아에서 상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언어 수업을 위해 스코틀랜드에서 유학한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성격은 원래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나, 자신이 한국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이승만대통령에게 강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전하며, 이러한 성격이 강인하고 고집이 센 성격으로 비춰졌다고 알려진다. 제1공화국 시절, 첫 한국 영부인의 전통을 세워나갔던 조용하면서 힘 있는 퍼스트레이디로 평가 받으며, ‘인

의 장막’을 만든 주인공으로도 평가 받기도 한다. 우리나라 역대 퍼스트레이디 중 가장 찬사와 비난이 엇갈리는 인물이기도 하다.

2) 헤어스타일 분석

프란체스카 여사는 서양인으로 금발머리에 그 당시의 유행했던 웨이브(wave)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퍼머넌트 웨이브를 시술했었다. 퍼머넌트 웨이브의 머리 형태를 세팅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서 빗질한 후, 앞머리의 리지(rigi)를 선명하게 살린 뱅 처리를 하였다. 앞머리 리지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시대의 유행 스타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Fig. 1> 도나 프란체스카 여사 대한민국 정부 기록 사진집 제1권 p.17

2. 공덕귀 여사

1) 환경 및 성격

부산의 일신여학교를 졸업 후 4년간 일본 요코하마 신학교, 동경여자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귀국하였다. 역대 영부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결혼 전에 사회생활을 했었으며 윤보선의 첫째 부인인 민씨가 병으로 죽어 공여사와 재혼을 하였다. 1년 7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공덕귀 여사는 정치에 대한 참견은 물론 일체의 봉사 활동도 하지 않은 아주 조용한 생활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생활이 끝난 후에는 윤보선 대통령을 도와 왕성한 정치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2) 헤어스타일 분석

한복을 주로 착용하였고, 헤어스타일은 전형적인 남자머리를 고수하였다.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네이프(nape) 하단에 다발처리를 한 단순한 머리 형태를 유지하였다.



〈Fig. 2〉 공덕귀 여사
대한민국 정부 기록 사진집 제5권 p.18

이론(iron)으로 컬을 맡아 세팅을 한 후, 빗질을 하여 두정부를 높게 세운 업스타일을 선호하였다. 목선을 살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옆선의 연결을 탑(top)방향으로 올리면서 얼굴이 가름하게 보일 수 있도록 두정부에 볼륨을 주었다. 머리 전체에 백 코밍을 하여 탑 부분으로 모았으며, 머리 전체에 풍성한 느낌을 주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였다.



〈Fig. 3〉 육영수 여사
<http://yukyungsoo.or.kr> 2005.4.3

3. 육영수 여사

1) 환경 및 성격

대부분 조용한 내조로 보낸 이전의 영부인과는 달리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는 활발한 활동을 하였는데 그때까지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치 배우자 상을 부각시킨 인물이었다. 배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육영수 여사는 어느 부인들처럼 수수하고 부지런한 현모양처의 전형적인 한국 여성상이었던 반면, 현실정치나 사회 현상에 만만찮은 관심을 갖고 그 현장에 뛰어든 패기 있는 여성이기도 했다. 과묵한 박대통령을 커버할 수 있는 재치 있는 대화와 적당한 제스처, 우아한 몸가짐은 청와대 안주인으로서 흠 잡을 데가 없어서 역대 영부인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 헤어스타일 분석

육영수 여사는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데 미용사에게 직접 요구 할 정도로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았다. 육영수 여사는 창호지를 대서 옛날식 아

4. 이순자 여사

1) 환경 및 성격

어린 시절 대단히 총명하고 학업성적이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여고를 나와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중퇴한 출신 학력에서 드러나듯 엘리트 교육을 거친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 같은 총명함이 때로는 구설수의 근원이 되기도 했다. 이순자 여사는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 때문에 대중 앞에서 대통령 이상의 손을 흔들고 화려한 옷차림을 즐겼다. 이러한 외향적 성격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온갖 루머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외국 순방 길에 차려 입었던 한복이 예전 왕비가 입었던 의상처럼 화려하여 사치의 경향을 지닌 영부인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으며, 여러 가지 부정부패사건에 연루되어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2) 헤어스타일 분석

헤어스타일은 전체 그레주에이션(graduation) 형태로 커트를 한 후, 퍼머넌트 웨이브를 바탕으로 아이론과 브로우 드라이어를 이용한 단정하면서도 화려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였다. 항상 가르마 선이 뚜렷하게 처리되었는데 이는 긴 턱 선을 보완하고자 방법으로 가르마 선의 위치를 낮게 선정하고 그 선을 살려서 후두부에 부피감을 주었다. 머리 끝은 컬이 없도록 스트레이트로 처리한 후, 업스타일로 마무리하였다. 또한 얼굴 전체에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를 유지하고, 컬의 형태가 보이지 않도록 매끈하게 처리하였다.



〈Fig. 4〉 이순자 여사
국민속의 전두환 대통령 p.22

5. 김옥숙 여사

1) 환경 및 성격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해서 자주 결석했지만 다행히 학교 성적이 우수해 무사히 졸업을 하였다. 경북 사대 가정학교에 진학을 했으나 4학년 때 노태우 대통령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학교를 중퇴하였다. 김 여사는 취임 초기부터 ‘그림자 외조’를 내세웠다. 이 같은 행동은 여성문제를 비롯해 청와대 안주인이 신경 써야 할 다양한 문제에 대한 관심 표명이 없다고 비춰지게 되어 일부 여권 운동가들 사이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니면 따로 개별적인 행사를 갖지 않으려 했으며, 지방순시에도 혼자 양로원, 장애인 수용시설 등을 찾는 개인적인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평소 운동을 즐겨 하던 김옥숙 여사는 공식 일정이 있는 경우는 두 번 이상씩 헤어스타일을 손질했다.

2) 헤어스타일 분석

헤어스타일은 머리 형태선이 둥글고 동일한 유니폼 레이어(uniform layer)로 커트하고 아이론을 이용하여 볼륨감을 준 후, 후두부 하단부분은 걸마름으로 표현하였다. 키와 풍채가 크고 머리숱이 많았으며, 타원형에 가깝한 턱 선을 지니고 있었다. 김옥숙 여사는 날카로워 보일 수 있는 인상을 보완하기 위해 머리 전체를 둥근 형태로 만들고, 더욱 풍성해 보일 수 있도록 머리 전체에 백 코밍(back combing) 처리를 하였다.



〈Fig. 5〉 김옥숙 여사
세계로 미래로 p.160

6. 손명순 여사

1) 환경 및 성격

약대 출신의 엘리트 출신인 손명순 여사는 전통적이면서 소극적인 모습으로 대통령을 보좌했다.

2) 헤어스타일 분석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15년 이상 헤어스타일을 담당 한 오정순 미용사에 따르면 손명순 여사의 머리는 모량은 많고 모발이 가늘었다고 한다. 형태는 길이가 짧은 그레주에이션 커트를 유지했으며, 모발이 가늘고

부드러워 볼륨감을 주기 위해 가발을 이용하였다. 가발은 먼저 미리 세팅(setting)을 한 후, 풀고 빗질하여 형태를 만들어 높은 후에 부착하였고, 앞머리는 가르마 선을 살려서 약간 각이 지게 연출하였다. 후두부는 걸마름으로 처리하여 네이프 하단에 핀 처리를 하였다.



〈Fig. 6〉 손명순 여사
알찬 결실 힘찬 도약 p.277

7. 이희호 여사

1) 환경 및 성격

이화여전 문과 입학 후 다시 서울대 사범대학에 입학해 교육학으로 전과했다. 졸업 후 미국문화원, 램버스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했으며 스카렛 대학의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역대 영부인 중에서 가장 학력이 높다.

2) 헤어스타일 분석

서울 프라자 호텔(plaza hotel) 미용실의 손민자 미용사가 헤어스타일을 담당하였는데, 앞머리는 볼륨을 높게 살려서 둥글게 연출하였고, 전체 머리는 컬이 없는 짧은 머리에 볼륨감을 주었다. 후두부는 그레쥬에이션 커트로 볼륨감 있는 층을 만들고, 정수리는 레이어 커트로 후두부 방향으로 흐르듯이 층을 주었다. 컬이 없는 짧은 머리를 브로우 드라이어로 볼륨을 주어 마무리 하였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재임 당시의 나이가 역대 영부인 중에서 연령이 가장 고령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컬러링의 색이 시대적 유행을 반영한 밝은 갈색 톤(tone)이었다는 것이다.



〈Fig. 7〉 이희호 여사
<http://www.president.go.kr> 2003.1.5

IV. 결론

지금까지 시대적인 유행스타일과 역대 대통령 영부인들의 헤어스타일을 조사하였는데 예전에는 청와대 내에 거울하나만 벽에 붙여 놓고 영부인의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였으나 지금은 살롱 형식의 공간이 청와대 내에 마련되어있다고 한다(오정순고문 인터뷰, 2003.10). 그만큼 미용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졌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부인의 헤어스타일을 담당하는 미용인의 경우도 그 시대 가장 뛰어난 기술력으로 이름 있는 유명한 미용인이 담당하기 때문에 영부인의 헤어스타일은 그 시대의 배경과 그 시대의 미용전문가의 기술력까지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의 헤어스타일을 분석한 〈표 1〉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란체스카 여사는 그 시대의 우리나라 전통 여인과 달리 서양인이기 때문에 금발머리에 서양스타일이다. 그런 반면에 공덕귀 여사는 전형적인 전통 여인상인 남자머리를 하고 있어서 서구 문명과 차이를 알 수 있다.

둘째, 육영수 여사는 공덕귀 여사와는 달리 신 시대의 헤어스타일을 볼 수 있다. 볼륨을 풍성하고 높게 처리한 업스타일을 하여 서구적인 헤어스타일을 하였다.

셋째, 공식석상에서의 헤어스타일은 공통적으로 앞머리가 이마를 덮지 않게 모두 올려 빗질하였는데

관상학적으로 내조를 위해서는 이마를 가리는 일이 없는 것이 좋다.

넷째. 세팅과 아이론, 백 콤을 하여 볼륨을 부여시키는데, 가벼운 가발까지 이용하여 더욱 풍성하게 표현하여 권위를 상징하였으며, 위엄 있는 자태를 나타내었다.

〈표 1〉우리나라 대통령의 영부인별 헤어스타일 분석

영부인	재임 시 복식 문화의 경향	재임 시 미용 문화의 경향	전체 머리 스타일	앞머리 처리	뒷머리 처리
도나 프란체스카 여사	· 의복 간소화 · 양복과 양장의 일반화	· 전기 퍼머넌트 웨이브, 아라이 아이론, 가봉 퍼머 유행	· 금발머리 웨이브(wave)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 뱅(bang)과 리지(ribe)를 살려 웨이브가 정형화 되어 보임	· 퍼머넌트 웨이브를 살려서 comb out.
공덕귀 여사	· 기성복시대와 개량 한복 공존 · 맘보바지	· 크라운 봄베이지 헤어스타일, 보브 스타일 유행	· 서구문명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한국전통의 전형적인 남자머리	· 가르마선이 확실치 않으며 뒤로 빗질함	· 네이프 하단에 낭자를 한 전형적인 고전 스타일
육영수 여사	· 히피스타일 · 판타롱, 청바지, 미니스커트	· 언발란스, 쉐기, 비달사순 커트 유행	· 신시대의 헤어스타일 · 볼륨을 풍성하고 높게 처리 · 우아하게 처리한 서구적인 업스타일	· 전통방식의 아이론으로 곱을 이용하여 높게 세운 두정부를 향하여 빗질	· 백 코밍으로 풍성한 볼륨 형성 · 두정부를 높게 처리한 업스타일
이순자 여사	· 스포츠 웨어 판매급증	· 클리퍼와 레저 등 새로운 도구 등장으로 신기술의 도입 · 곱을 살리는 특수 퍼머 유행	· 길이감이 있는 커트 퍼머넌트 웨이브를 바탕으로 아이론과 브로우 드라이어를 이용하여 단정하면서 화려한 헤어스타일을 연출	· 긴 턱 선 보완위해 가르마선 위치를 낮고 뚜렷하게 선정 · 두상과 가르마에 대한 수직빗질	· 후두부에 백 코밍으로 부피감부여 · 머리끝은 곱이 없도록 매끄럽게 처리 · 업스타일 마무리
김옥숙 여사	· 복고풍 지향 · 천연소재 인기	· 컬러 제품의 다양화로 헤어 컬러링의 화려한 연출	· 둥근 커트 형태선 · 아이론으로 볼륨감 부여 · 키, 풍채가 크고 머리숱이 많은데 더욱 풍성해 보일 수 있도록 머리 전체에 백 코밍처리	· 가르마 선은 없지만 약간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듯이 빗질함 · 크고 둥근 모양을 보임	· 후두부 하단 부분은 곱마름으로표현 · 짧은 업스타일 표현

〈표 1〉 계속

영부인	재임 시 복식 문화의 경향	재임 시 미용 문화의 경향	전체 머리 스타일	앞머리 처리	뒷머리 처리
손명순 여사	· 정장 인기 · 복고풍 패션 주도 · 개성 추구 풍 조 정착	· 염색 및 탈색의 유행 · 모발손상에 따른 트리트먼트 중요 성 부각	· 그레쥬에이션 커트 · 모발이 가늘고 부 드러워 볼륨감을 주 기 위해 가발을 이 용 하였는데 미리 세팅(setting) 한 후, 풀고 빗질하여 형태 를 만들어 부착	· 앞머리는 가르마 선을 살려서 약간 각이지게 연출	· 후두부는 걸마 름으로 처리 · 네이프 하단 에 핀 처리를 함
이희호 여사	· 신세대 노출 패션 · 왜색풍 패션 유행 · 유행의 수명이 짧아짐	· 성형수술의 일 반화 · 헤어스타일의 다 양화	· 전체 머리는 컬이 없는 짧은 머리에 볼륨감 부여. · 시대적 유행을 반 영한 밝은 갈색	· 앞머리는 볼륨을 높게 살려서 둥글 게 연출	· 후두부 볼륨감 부여 · 정수리 레이 어 커트 · 후두부 방 향으로 흐르듯 이 층을 줌

다섯째, 흑백문화에서 컬러문화로 넘어 오면서 흰 머리를 커버하기 위해 염색을 하기도 하였으나 거의 검정색으로 처리된 것을 화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희호 여사의 경우 눈에 떨 정도로 밝은 색상으로 염색이 된 것으로 보아 시대적인 컬러의 유행이 대통령 영부인의 헤어스타일에도 그 영향을 미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전선정 외(2001). *미용 미학과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pp. 305-368.

2) 박수경(1994). *우리나라 영부인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공식석상에서의 한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원 연구논문집 26호 pp. 226-246.

3) 고영현(1994). *한국 역대 대통령 영부인들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회도서관.

4) 소영진(2004). 1970년대 한국 여성의 헤어모드 분석. *한국미용학회지* 제10권 2호 pp.195-201.

5) *미용신문* 제166호, p.22, 2002년 9월 1일자

6) 국가 홍보처(1999). *대한민국 정부기록사진집* 제1권.

7) 국가 홍보처(2001). *대한민국 정부 기록사진집* 제5권.

8) 문화공보부(1983). *국민속의 전두환 대통령*

9) 대통령 비서실(1996). *세계로 미래로* (노태우 대통령의 변화와 개혁 3차년도).

10) 문화공보부(1984). *알찬 결실 힘찬 도약* 제5공화국 4년의 발걸음).

11) <http://yukyounghoo.or.kr/2005.4.3>

12) <http://www.archives.go.kr/president/2005.5.10>

13) <http://www.president.go.kr/2003.1.5>

(2005년 2월 23일 접수, 2005년 4월 7일 채택)